23일 오후 4시 김광용(40) 씨는 아들 아석(10) 군, 딸 아인(7) 양과 함께 땀에 흠뻑 젖은 채 임진각에 도착했다.

작년 3월24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국토 종단을 시작한 이들은 꼭 1년 만에 620km를 걸어 임진각에 이르렀다. 김 씨와 아석 군은 완주했고, 아인 양도 눈,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걸었다. 기나긴 종단의 끝을 축하해주러 온 친지 20여명은 이날 “내친 김에 백두산까지 가라”고 권했다. 검게 그을린 얼굴의 김 씨 가족들은 “조금 쉰 다음 계획해 보겠다”며 환하게 웃었다.